

계간 자 201712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CONTENTS

표지이야기

진시영 작. '금성관, 천년의 빛을 입다', 미디어파사드, 2017

광주 출생. 조선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박사수료, 뉴욕 프랫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뉴폼을 전공. 광주미술상,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무등미술대전 대상 등 수상. '금성관, 천년의 빛을 입다' (2017년 10월 16일), 나주 금성관(전남유형문화재 제2호)에서 나주시가 정도(定都) 999년을 기념해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진행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 장면으로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2	'창'을 열며 '시민참여제도 확대'로 '촛불혁명' 실천을	김 성
3	특집기획좌담_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CT연구원 광주 설립,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	
16	문화인 탐구생활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는가 - 최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서연정
18	문화진단 이제 국회를 바꿉시다! 장애인 문화정책의 현주소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광주	김현영 정진삼 안평환
24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우리나라 최초 인삼 시배지, 삼밭실을 아십니까?	편집부
26	문화현장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현재와 미래 광주역사문화자원 사업, 스토리텔링 토대를 마련하다	선재규 위주영
30	문화청년그룹 청년단체들, 수혜대상에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 멋진 세상을 상상하고, 현실화하라! 상상실현 네트워크	김서영
32	문화톡톡 지역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문화보존 제언 전남대 민중항쟁도 벽화그리기	안태기 장여진
37	응답하라 1980	김향득
38	재단·회원 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창’을 열며

‘시민참여제도 확대’로 ‘촛불혁명’ 실천을

김 성_ 재단후원회장, 광주대 초빙교수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시작되었던 ‘촛불시위’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후 구속되고, 조기 실시된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뽑혔다. 하여 처음 ‘촛불시위’였던 명칭도 이제는 ‘촛불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았고, 적폐도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혁명’이 완성되었다기 보다는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정치개혁·경제정의 실천·적폐청산’이 촛불혁명 과제

이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세 가지다. 정치개혁, 경제정의 실천, 적폐청산이다. 정권교체만으로 민주주의와 경제사회발전이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 시스템을 교체해야만 민주화의 퇴보를 막는 길임을 알았다.

우리는 엄청나게 달라진 미래 사회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의 벽이 허물어진 오늘날 우방인 미국도 우리를 압박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오로지 경쟁력 하나로 200개의 국가와 싸워야 한다. 독재체제가 무너지면서 시장·시민단체·이익집단·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통부’가 필요하게 됐다. 사이버 관료화, 민간 위탁으로 전문화된 행정을 보게 될 날도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런 형편에서 지금의 정부 시스템으로 혁신을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을 계기로 우리가 교체해야 할 시스템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참여를 직접민주주의로 동일시 하지만 조금 다른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의민주주의제도는 국회와 지방의회다. 그런데 이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여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와 경쟁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고리원전의 존폐를 논했던 공론화위원회처럼 속의 민주주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화’를 활용하여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적어도 100만~200백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국가 여론조사 시스템’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 방식은 각 지역별·계층별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 기관에 대해 분발을 촉구할 수도 있다. 나머지 셋째는, 행정의 민간위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국식 행정이 선진 관리시스템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행정이 민간경영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대학에서 배운 자신의 전공을 밀쳐버리고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는 수십만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행정이 독점적 기업처럼 행세하도록 계속 낱겨서는 안된다. 국민 누구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경로로 행정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권력분산·선거제도’ 개혁해야

또 하나의 과제는 시스템의 개혁, 즉 개헌이다. 권력구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분산이다. 중앙정부 내에서 분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로의 분권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제도 역시 국민 지지율과 의석 배분율이 각기 다른 현재의 모순이 해결되도록 양원제, 석패율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해결되어야 명실공히 ‘촛불혁명’의 완성됐다고 할 것이다. ♪

특집기획좌담_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CT연구원 광주 설립,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6시

• **장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회의실

• **참석자 사회** 이기훈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김상윤_ CT연구원설립실행위원장,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철우_ 전남대학교 문화기술연구소장,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박순보_ 광주과학기술원 CT 연구소장

신현대_ 광주광역시 문화산업과장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하 CT연구원) 광주 설립이 이야기 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2011년 12월)되었고,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13년 6월에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CT연구소가 창립되어 CT연구원 설립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역의 준비와 소통의 부족,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와 설상가상 CT연구원 건립 설계비로 편성된 국비 8억 원마저 '사업기간 내 미집행'을 이유로 반납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0년간 표류하던 사업이 지난 대선 시기에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어 순풍이 불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에 100대 국정과제에 누락되는 등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동안의 CT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계획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화담론지 『창』 편집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 '글로벌 문화광주를 키우는 힘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CT연구원)'을 주제로 첫 번째 기획좌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두 번째 기획좌담은 2012년 3월 'CT연구원 설립과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열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기획좌담입니다. 그만큼 CT연구원 광주 설립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좌담회의 내용을 지상 중계합니다.

- 편집자주

특집기획좌담_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CT연구원 광주 설립,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 이기훈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좌담자 김상윤_ CT연구원설립실행위원장,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철우_ 전남대학교 문화기술연구소장,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박순보_ 광주과학기술원 CT 연구소장

신현대_ 광주광역시 문화산업과장

사회자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 미래를 견인하는 쌍두마차로 CT연구원에 주목하고 지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CT연구원 설립이 지역사회에 회자된 지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면서 이제는 CT연구원 설립이 순풍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누락되면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연구원 광주설립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좌담회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의 경과와 소회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김상윤 이사장님부터 말씀해주십시오.

김상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외람되지만 참 기특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충청도는 행정수도, 부산경남은 물류

수도, 호남은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참 탁월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하다는 판단에 우리가 제시한 수익모델이 바로 CT연구원이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가 익히 알고 다시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고 지속되었더라면 CT연구원은 이미 설립이 끝나서 가동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화수도 구상이 마치 선거에 대한 보상이나 되는 것처럼 폄하되면서 지속적으로 견제되고, 하는 척 품만 잡고 있다가 CT연구원 설립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CT연구소라고 하는 점하나 찍고 끝나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CT연구원 설립은 더욱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사회자 10년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깊이 묻어나오는 말씀입니다. CT연구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행정과 시민사회



왼쪽부터 박순보 광주과기원 CT 연구소장, 이철우 전남대 교수,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김상윤 CT연구원설립실행위원장, 신현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과장

가 약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만 행정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경과와 소회는 어떻습니까?

신현대 CT연구원 설립은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계획 당시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그동안 문화계인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성과로 2011년 장병완 국회의원 발의로 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고 2013년 광주과기원내에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설립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우리시의 청사건립 부지 무상제공 약속(2015년 11월)에도 불구하고, CT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와 그에 따른 감사원(2013년 10월)지적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등의 난항을 겪다 2015년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독립청사 건립 설계비가 반납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CT연구원 설립에 대한 염원은 꺼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활동을 통해 문재인정부 출범에도 대통령 공약에는 반영하였으나, 국정과제에는 채택되

지 못함으로, 상황은 10여년과 별 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후지실(雨後地實)이라고 비온 뒤에 땅이 굳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CT연구원 설립에 관심을 갖고 애써 오신 문화계 인사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지역역량이 결집되고, 더군다나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설립지시가 있었던 CT연구원 설립이 설립 근거 법안과 예비타당성 조사만 통과된다면 광주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렇게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갖게 되니 감회가 더욱 새롭고 CT연구원 설립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맘 가득합니다.

이철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앞서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 광주시가 본격적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리더들을 중심으로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이철우 전남대 교수

CT연구원의 키워드는 '상상을 실현하는 기술'입니다. 상상력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팔아야만 이 지역의 산업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갖습니다.

CT연구원의 키워드는 '상상을 실현하는 기술'입니다. 상상력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팔아야만 이 지역의 산업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면 CT연구원 설립에 대한 희망을 갖고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욕심을 부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도 그렇고 우리 전남대도 마찬가지지만 CT와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CT와 관련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문화상품이나 가전기기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이라도 빨리 연구를 설립해서 이 지역 미래를 밝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CT연구원 설립은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이상 최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원 설립으로 지역 연구개발, 산업육성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박순보 일단은 김상운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탁월한 제안으로 우리 지역이 문화수도로 지정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인사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해준 덕분에 CT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는 기반 속에서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가 설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작년에 지역인사 두 분과의 만남에서 우리들이 노력해서 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왜 지역과 교류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사실 교류하기에는 시간과 상황이 어려워서 그에 대한 안내를 못해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3년 연구소 설립 초기에 CT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연구소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담고 진행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초기 운영비 포함 총50억원의 예산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R&D 비용이 20억원으로 삭감되었고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R&D는 필요에 따라서 일부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문화기술 선진국의 경우처럼 응용기술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체로 원천기술 위주의 R&D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응용기술 위주의 CT R&D 분야에 대한 결과물들을 제시해야만 이 그 정체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현재의 R&D 예산과 3년여 만에 개발되어야 하는 개발기간의 문제로 설득력 있는 결과물을 조속한 시간 내에 제시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연구소 운영 예산과 별도의 100억원 미만 규모의 R&D 및 문화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광주과학기술원 석박사 학위과정)을 제안했으나 아직도 담보상태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사회자 네 분의 말씀을 듣고보니 CT연구원 설립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많은 시민들에게 CT연구원은 생소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CT연구원의 개념과 범위, 기능과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박순보 소장님부터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보 현대미술의 형식 중 비디오 아트(Video Art)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80년대 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회자됐던 용어가 아트& 미디어테크놀로지입니다. 예술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을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녹여서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문화적 콘텐츠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응용기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경험 구조를 가진 사람(수용자/일종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요소를 보다 풍성하게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기술은 소통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익숙한 젊은 층들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포맷으로 구조를 개선하여 소통에 매력을 더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연구개발이 상품화되고 또 이로부터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만이 문화를 더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을 뿐더러 경제적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문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인력, 즉 인적자원이 부족한데요. 그 자원을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설립의 길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광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CT연구원 설립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철우 교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을 이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우 먼저 문화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공통된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CT를 문화적 자원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문화상품을 제작 생산하고 그 상품을 유통시켜 최종 소비자인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여하는 첨단 과학기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화기술에 대한 생각은 전통적인 문화예술계에서 바라보는 것과 문화기술자가 바라보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전통적인 입장은 기술, 기교, 기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문화기술자는 첨단테크놀로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게 원천기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하면 최근 들어서 문화산업을 보면 구글의 딥드림(Deep Dream)의 경우와 같이 그곳에서 운용되는 기술은 최첨단기술이자 원천기술입니다. 이미 지분류시스템을 인공지능화해 우리가 인지능력을 기계적으로 모사해서 인간의 수준에 맞는 인간과 유사한 창작성을 모방하고 있는데 즉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의 경계가 최근 들어 모호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3D 프린팅 등의 현시대를 대표하는 기술들이 문화상품의 제작, 전시, 공연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글로벌화, 실시간화에 의해 문화상품은 국가와 인종 간의 차이가 없이 서로 경쟁하고 향유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에 의해 사용자 중심의 개인화, 실감화, 휴대화, 자동화 등이 기존 상품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CT연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화에 있다고 봅니다. R&D 성과가 바로 산업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예를들면 굉장히 선진화되고 첨단화된 상품을 만들고 싶은 산업체가 기술개발을 요청하면 그것을 바로 연구개발을 통해 상품화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로 CT연구원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상력을 실현하는 모든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연구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우리지역으로 봐서도 자동차, 가전, 광산업 등 주요산업의 발전이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산업과 새로운 문화상품 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는 이제 뭔가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동안 여러번 김상윤 이사장께서 CT연구원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양꼬 없는 찌뽕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해오셨는데요. 조성사업과 CT연구원은 어떤 관계일까요?

김상윤 우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우리지역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와 시민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나 시민들 모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광주문화수도’라고 하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든 간에, 그동안 낙후되었던 호남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의미입니다. 이 조성사업을 통해 낙후된 호남을 타 지역과 동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라고 하는 각도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진정으로 광주문화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로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호남 소외가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이 문화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둘째, 아시아문화전당에 ‘민주평화교류원’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통해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아시아인권네트워킹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평화교류원이 가동이 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게 되면 당연히 홍콩에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를 광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광주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메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표가 사실은 CT연구원의 가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유인촌 문화부장관을 조성위원 자격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천만 명이 사는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도 제대로 타산을 못 맞추는데 150만이 사는 광주에 이렇게 거대한 전당을 지어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아시아문화전당만 떼어내 지역에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유인촌 전 장관의 걱정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풍피두센터를 가서 보았지만 단

일건물이잖아요. 물론 규모는 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은 연건평으로 보았을 때 풍피두센터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있는 다섯 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사실상 수익모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전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문화산업을 통해 광주에 돈이 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경제라고 하는 물이 차야 문화라고 하는 배가 뜰 수 있습니다. CT연구원이 들어서서 광주에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물이 차고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CT연구원의 거대한 파급효과가 없다면 아시아문화전당은 사실상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CT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CT연구원과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쌍두마차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과장님, 조성사업에서 5대 전략 문화콘텐츠산업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진척정도와 함께 문화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CT연구원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신현대 현재 우리시는 첨단영상, 게임, 음악, 공예·디자인, 에듀테인먼트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5대 전략콘텐츠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실감콘텐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19년까지 실감콘텐츠산업 기반조성, 2023년까지 5대 전략콘텐츠 중심 사업 고도화 등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대 전략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지원에서부터 자금, 장비 및 시설지원 등을 통한 기업지원과 유치,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한 대시민 문화향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CT연구원입니다.

CT연구원은 문화산업의 기획, 제작, 창작, 유통, 소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R&D기구로,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될 문화콘텐츠의 가치사슬인 ‘소재 발

CT연구원이 들어서서 광주에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물이 차고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CT연구원의 거대한 파급효과가 없다면 아시아문화전당은 사실상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CT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상윤 CT연구원설립실행위원장

굴-기획-제작-소비' 전 단계에 작용하여, 문화상품의 부가 가치를 배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CT연구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의지를 읽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사회자 이제는 시각을 좁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2011년 12월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마중물로 문화기술연구주관기관으로 광주과기원 CT연구소가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 지역 사회의 평가는 유보적입니다. 향후 CT연구원 광주 설립 과정에서 시사점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어 보실까요?

김상윤 제가 광주과기원 CT연구소 오픈식 때 참석했는데요. 초대 소장이 왜 CT연구소가 광주과기원에 만들어졌는지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CT연구소는 CT연구원을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로 만들어진 것인데 CT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광주과기원의 CT연구소는 CT연구원을 만드는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광주과기원 내의 프로젝트 수행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 CT연구원 설립을 미적대고 있었던 현실적인 상황도 존재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CT연구소가 CT연구

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철우 저는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내 CT연구소를 어디까지나 본 연구를 설립하기 위한 경과조직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규모나 활동내용이나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볼 때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 전문가와의 소통의 부재가 현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일정의 연구성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렸던 큰 그림에 비하면 소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의도했던 원론적인 독립된 첨단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산업을 리드해갈 수 있는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정체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유치를 위해서 모든 광주 시민이 뭉쳐서 이 일을 추진해가야 하고 어떤 기관이나 지역도 자신들만의 이기주의를 버리는 대승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현대 CT연구소는 2013년 4월 CT연구원의 인큐베이터로 광주과기원에 개소되어,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한국문화기



박순보 광주과기원 CT 연구소장

현재 문화기술연구소가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조건이 너무 제약적이라 그동안 저희들의 역량으로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그리고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의 R&D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술연구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출연연구원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 2015년 국책연구원 전환, 2016년 독립청사건립, 2017년 유사연구기관 흡수통합 단계의 발전 로드맵이 수립되었으나, 금년 2월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독립청사 건립 설계비 8억원이 불용 반납되면서 이러한 발전로드맵은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CT연구소가 소속은 광주과기원(과기부)이면서 예산은 문체부에서 받다보니, 발전로드맵 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소통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부지런히 양쪽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만 국가 직접사업이어서 우리시와의 연결도 부족하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독립청사 건립 설계비 8억원 반납 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향후 CT연구원 설립근거 마련 시에는 이원화 된 법적 거버넌스를 하나로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CT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문화기술연구소가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조건이 너무 제약적이라 그동안 저희들의 역량으로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그리고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의 R&D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술연구

소가 CT연구원 설립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업 아이템과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지원기관과의 협력 역시 쉬운 일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자 CT연구원 광주 설립의 법적 제도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과장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신현대 CT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법률 개정입니다. 법률개정은 정부 또는 국회에서 하게 되는데, 정부입법의 경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보통 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회입법은 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정부입법보다 간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CT연구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송기석의원에 의해 발의(11월 2일)되어, 앞으로 위원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 심사는 입법예고, 위원회 상정, 제안자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 공청회·청문회,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축조심사를 거쳐 찬반토론 표결로 가결 또는 폐기되고, 위원회 가결이 되면 다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와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CT연구원의 광주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히 공감되어야 합니다.

특히, CT연구원은 단순한 정부출자·출연의 공공기관이 아닌 R&D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부 소속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나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만 가능합니다. 문화기술은 문화와 기술을 합친 개념으로 그동안 기술에 방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창의성과 개방성이 강조되는 문화에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관련 총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을 두기에는 법체계 관점의 검토가 필요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는 현재, 다각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토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억 이상의 국가사업인 경우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는 물론 여기계신 전문가들은 물론 우리 지역 모든 시민이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는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자 CT연구원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미래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가 있는데 굳이 CT연구원이 필요하냐고 반문합니다.

이철우 ETRI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많은 발전을 해온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연구원과 정체성부터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기에 들어서면서 필요한 기술을 산업체와 국가 연구기관, 대학이 하나가 되어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진기술을 국산화하여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지속되면서 국책연구기관은 차츰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하였습니다. 특히 개선해야 될 점이 산업체와의 연결문제에 있어서 ETRI와 같

은 출연연구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출연기관들이 자기 조직 운영을 위해 국가의 R&D 예산을 일정부분 할당을 받고 일부를 다시 대학에 나누어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혁신적이고 현장 우선적인 연구개발에 비효율적인 면이 강합니다. 새로 설립되는 연구원에서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R&D의 주체가 산업체 요구와 혁신적인 아이টে임을 주제로 하고 그 결과가 바로 산업체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로 가야만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통산성 산하의 기존 연구소들을 구조조정해서 현실에 맞는 소규모의 특화된 조직으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다. ETRI에 문화기술, 문화산업과 연관된 조직은 따로 분리해서 문화기술연구원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국가적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아젠다의 측면에서 CT연구원 설립은 필요하지만 왜, 광주인가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CT연구원은 왜 광주에 설립되어야 하나요?

김상운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나라의 미래를 보는 인식의 일관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이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으면 나라의 발전이 많은 장애를 일으킨다는 인식 아래, 국가의 총체적 기능들을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합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들도 대부분 지방으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의 산물이었지요.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문화를 매개로 재구성한다’는 전제 아래 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이 제안된 것입니다. 광주가 CT연구원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여기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에는 수익모델이 없으니 CT연구원을 세워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분야를 선택하고, 문화 분야의 여러 아이টে임을 광주와 호남에 집중하여 호남의 미래를 다시

재구성하자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틀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예술위원회도 나주 혁신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CT연구원의 설립도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져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보는 인식의 틀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원래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틀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화로 지역의 미래를 재구성하자는 측면에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CT연구원을 이 지역에 세우자고 한 것이지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문화라고 하는 아이টে임을 선택한 것이고, 이 지역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전했듯이 CT연구원도 집중이라고 하는 의도에 맞게 광주에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철우 지역 유치의 당위성을 말할 때 항상 제기되는 문화시설 등의 문화적 수치나 문화관광 등 문화지수 등을 따지면 사실 서울 이외에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지표로 지역에서의 문화기관 설립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대 21세기는 문화콘텐츠전쟁시대입니다. 잘 만들어진 문화콘텐츠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바타, 해리포터, 겨울연가 등을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재미있게 상품화 하느냐’가 국부 창출의 근원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화기술(CT)은 이러한 시대에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상품화’ 전반의 가치사슬 즉,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에 적용되어 문화상품의 부가가치를 배가시키는 기술로서,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콘텐츠 진흥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CT(문화기술)을 선정하고 2007년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곧 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계획을 반영하고, 곧이어 10월 8일 종합계획 선포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설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CT연구원 설립은 법적근거 미비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그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왜곡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법에 의해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문화수도’로서 지위를 보장받고 있고, 또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란? 문화생산과 유통, 소비, 창조가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지는 도시로서, 문화산업의 가치사슬 전 단계에 적용되는 기술 즉 CT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CT연구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연구용역에 따르면 CT연구원 광주설립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암공단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문화교류, 문화예술, 문화산업간의 실증적 연계를 통해 아시아문화수도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를 약속한 만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양대 축의 하나’인 CT연구원 광주설립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문화 연구 창조 교육 및 산업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철우 우선 연구원의 설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첨단 CT기술은 국가의 미래, 즉 새롭고 고부가가치적인 먹거리 마련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시설의 위치는 모든 지역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수도조성사업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문화의 전당은 문화수도라는 대전제 하에 그 동안 낙후된 이 지역 산업과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던 것인가요? 그리고 연구원은 거기에 맞추어 대통령이 공적으로 공약을 하였고 초기에는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정치적인 상황변화로 이리저리 미루다가 이렇게

앞으로 산·학·연·정·관 등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지 결집 및 지지기반 강화, CT연구원 발전방향 제시 및 위상제고,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등 상황별 대응전략 수립 및 추진, 기타 CT연구원 설립 관련 제반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현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과장

늦어진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큰 당위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의 전당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원을 광주에 설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전당도 대표 브랜드 콘텐츠를 하루 속히 도입해서 첨단 기술과 발맞추어가는 시설로 특성화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광주지역의 문화산업의 수준이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환경이 좋은 산업군이 이 지역에 있습니까? 문화산업 보다 더 나은 산업환경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모든 면에서 선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진 서울, 대전, 부산보다 지표적으로 뒤쳐져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개선할 어떤 계기를 주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문화의전당을 설립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이 지역으로 보냈을까요?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역 사회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광주시 CT연구원 설립추진 실행위원회의 출범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행위원의 출범 과정과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지?

신현대 CT연구원 설립추진 실행위원회는 2007년부터 논의되어온 CT연구원 설립이 대통령 지방공약에는 반영되었으나, 지난 7월 발표된 국정100대과제에는 채택되지 않음

에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정부활동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위원회 설립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9월 CT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노력과 독려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지역의 정책적 의지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유연하고 추동력있는 산·학·연·정 네트워크 구성 및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CT연구원설립 추진위원회 전단계로 「CT연구원 설립추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그동안 CT연구원 설립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인사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연대와 소통을 위해 시민사회,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언론, 학계 등 분야별 명망가들로 고루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산·학·연·정·관 등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지 결집 및 지지기반 강화, CT연구원 발전방향 제시 및 위상제고,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등 상황별 대응전략 수립 및 추진, 기타 CT연구원 설립 관련 제반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CT연구원 설립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CT연구원 설립추진 실행위원회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CT연구원 설립 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상윤 무엇보다도 국책연구기관으로 CT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닙니까? 100대 과제에 포함되었더라면 좀 더 순항을 했겠죠. 하지만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인 정부에서 CT연구원을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못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민들이 이러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CT연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CT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중심을 만들고,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보다 큰 틀의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CT연구원 설립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공유해야 하며, 그것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에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실행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행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이나 첨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우선 실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좌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방송이 중심이 되어 CT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집중적인 특집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는 부산국제영화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역브랜드로 성장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즉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운동부터 시작해야만 전문가들도 가능성을 평가해주고 광주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방안은 역시 사람이 중요하므로 대학에 CT와 관련된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우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학들은 관련 전공분야를 설립하고 산업계, 학계, 국내외의 우수 연구자들을 교수요원으로 영입하여 인력양성

에 노력하고, CGI센터, 문화산업 관련기업들의 지원 등을 통해 끊임없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을 선점해서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타 지역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 나름대로 준비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적으로는 CGI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사업들이 커가고 있어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아직은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갈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제적 할 수 있는 일들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박순보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부족했습니다. 즉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CT 관련해서 선진기관들인 독일의 아트콤(ART+COM), 미국의 엠아이티 미디어랩(MIT Media Lab), 일본의 엔티티 아이시시(NTT ICC) 등 해외 주요기관에 가서 우리 방송들이 촬영을 해서 소개한다면 문화기술에 대한 생각을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칫 전국적으로 방송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CT연구원을 뺏어갈 욕심이 생길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전략적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이 무엇인지 문화 광주와 인근지역의 문화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어느덧 좌담회를 마무리해야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CT연구원 건립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좌담 중에 놓쳤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순보 아까 제가 이전에 교육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계신분들이 연구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원이 설립되더라도 R&D도 하고 동시에 문화기술 전

문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연구원설립의 예산규모가 500억 이상이면 국책사업로서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그동안 고민했던 문화기술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연간 100억 미만으로도 2022년 정도면 일자리가 4천여 개 정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양쪽 캠퍼스(홍릉 캠퍼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캠퍼스) 합해서 한 해 50명씩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문화기술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가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시했고, 이것들은 모두 1년에서 2년 내에 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공연예술, 문화재 체험 등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물관에서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기술로 만들어 놓을 경우 AR안경을 쓰고, 예를 들어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과 그 활용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 있다면 CT연구소가 무엇을 하는지를 쉽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이나 광주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비 지원을 해주실 경우 일자리가 생길뿐더러 하루빨리 훌륭한 결과물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철우 CT연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소스를 제공하는 기관일 수도 있는 광주과학관이나 박물관, 전당, 아시아문화원, 문화재단 등과의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대 오늘은 CT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전당과 협의를 해가야 할 상황이구요. 문화전당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등과의 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역의 문화산업에 관련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CT연구원이 설립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설립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전략마련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기반 확대는 물론 대정부, 국회 유지활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는 앞으로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CT연구원 광주설립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포럼,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겠지만, 시민여러분들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지역의 염원이었던 CT연구원이 광주에 설립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결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김상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시민들이 CT연구원이 광주로 와야 한다는 절박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CT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전문가들이 CT연구원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CT연구원 설립으로 광주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영상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시민사회에서도 CT연구원 설립에 대한 이해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T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효과적인 홍보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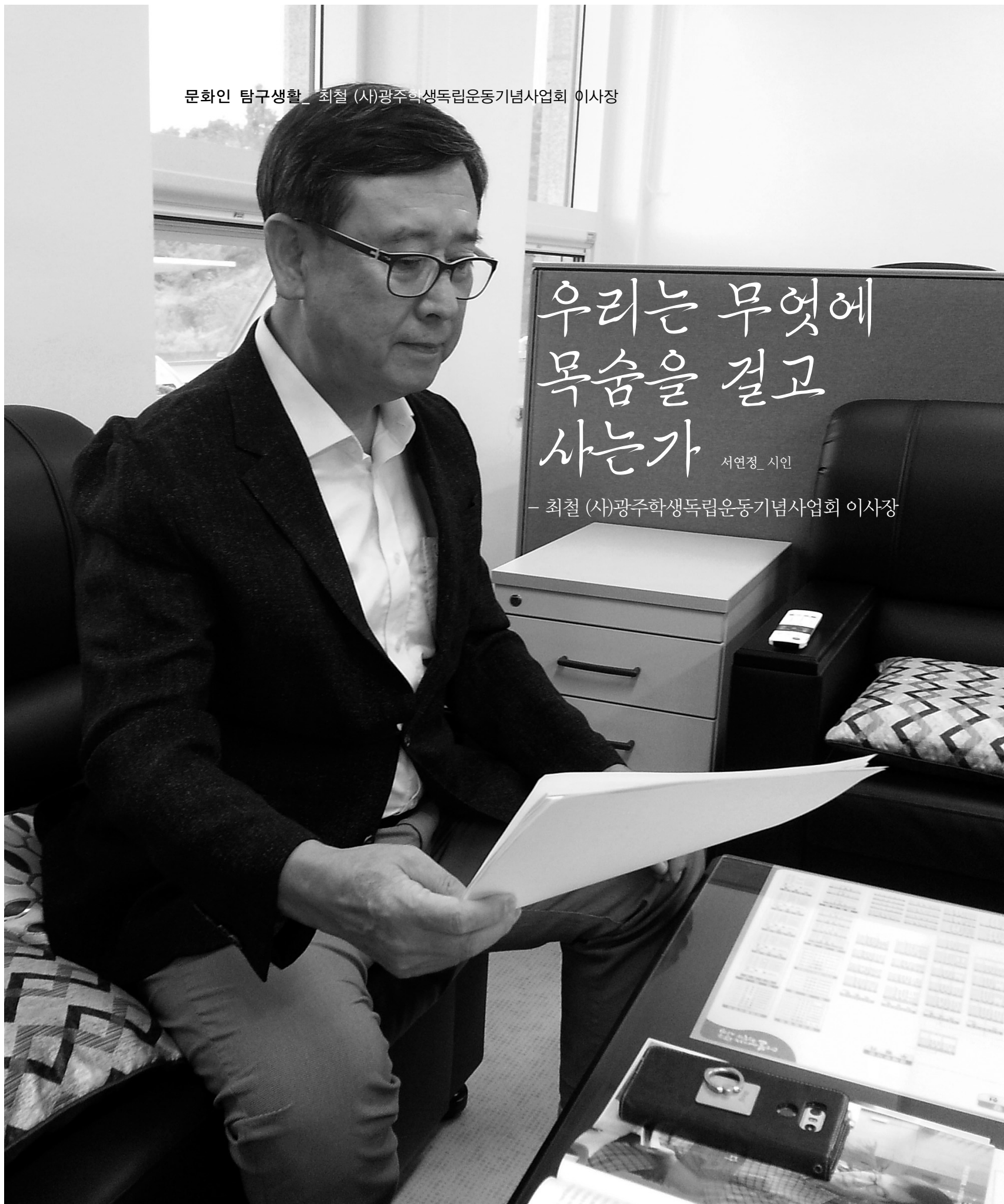
지역사회에서 오랜만에 민관산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CT연구원 설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도 이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인 탐구생활_ 최철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는가

서연정_시인

- 최철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는가. 생이란 누군가에게는 심오한 의미의 조각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이미지의 현현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신념에 따라 생을 꾸려간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을 인식하고 탐구하고 행동하기까지의 과정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신념이라고 하겠다.

“옳은 일을 행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를 신념으로 지니고 사는 사람...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최철 이사장은 이 단체 강삼석 고문과의 인연으로 2016년부터 기념사업회의 일을 맡고 있다.

그는 1951년 해남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광주로 유학을 와서 광주서중과 제일고교를 다니는 6년 동안 교정의 학생탑을 보고 다녔다고 한다. 주변 환경은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중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의 청소년기는 1964년 한일회담, 1965년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관련 조약을 조인 비준한 한일협정, 1969년 삼선개헌,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긴급조치 공포,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 사건 등 현대사의 숨찬 협곡과 함께한다. 당시 전국은 민주를 열망하는 시위 열기에 휩싸였다. 흡사 폭발하는 활화산처럼 그의 청년기는 민주에의 열망이 타오르고 분출하는 시대였다.

1971년 고교를 졸업했으나 이러저러한 사정이 겹치면서, 1974년에야 전남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친구들이 4학년일 때 신입생이 된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리라 다짐하고 3월에 입학하였는데 4월 전국 여러 대학의 운동권 학생들이 반독재 시위를 추진하였다. 당시 박정희군사정권은 반정부투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정부 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몰아 그중 180명을 구속하였다. 이 중에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8명은 사형되었고 나머지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는 민청학련 전남대학교 유죄선고자 13인 중 한 명으로 군법회의 2심에서 징역 10년을 언도 받고 옥살이를 하던 중 11개월만에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행로를



왼쪽부터 나병남 이사, 최철 이사장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제적된 상태였고, 이후 그에게 닥쳐오는 사회생활은 만만치가 않았다.

전남대민주동우회 창립의 산파역을 하기도 한 그에게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미와 광주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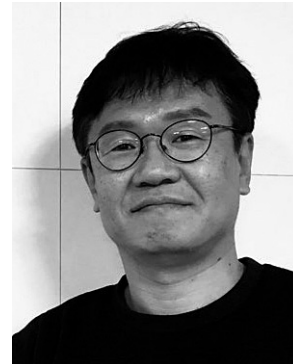
“일제하, 광주에서 촉발되어 전국적으로 또한 해외까지 번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뜻이 세월이 흐르기도 했지만 과거의 독재 정권 하에서는 그것을 기리는 것을 좋아하질 않아서 지금은 너무나 그 뜻이 퇴색되어 버렸고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그 뜻을 이어가고 되새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진왜란 의병활동, 동학, 한말의 의병활동에서 보여준 호남의 구국의 뜻들이 모여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더 나아가 ‘5·18’로 이어졌으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광주정신 또는 오월정신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에게서 평생 지녀온 올곧은 신념이 전해져 온다. 광주정신의 뿌리를 되새기며 돌아오는 길, 스스로 물어본다. 너는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가? ♪

문화진단

이제 국회를 바꿈시다!

김현영_ 정치개혁 광주행동 운영위원,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



이제 추한 정치인과 오염된 정치판을 시민의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출범이 정치개혁, 나라개혁의 총론적 방향 키를 설정한 것이라면, 구체적 각론적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개혁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판을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과 정당법 개혁을 통해 부패세력이 연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특정한 소수 사람에 독점된 정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물러 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가속화될수록 퇴물 정치인들의 신음소리가 비명으로 탈바꿈되어 지고 있다. 이 소리 만큼 시민들에게 즐거운 소음이 언제 있었는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은 잊어버린 세월이 아닌 치유할 수 없는 썩어 버린 고통의 시간이었다. 정치정보복이라는 표현이 최근 간간히 들리고 있는 것은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추물 정치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표현이다.

다만 정권이 바뀌어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기득권 부패 정치세력이 스스로 소멸될 여지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다.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연고주의, 지역주의를 방패로 저항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심판은 검찰의 사정 갈날과 법적 잣대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직시민의, 유권자의 힘으로 악덕, 부패 정치세력을 심판해야만 완전한 청산을 이룰 수 있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더러운 정치인들과 그 집단에

의해 오염되어 더러운 수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결과이다. 다만 감시되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개인의 선한 의지와는 별개로 부패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이제 추한 정치인과 오염된 정치판을 시민의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출범이 정치개혁, 나라개혁의 총론적 방향 키를 설정한 것이라면, 구체적 각론적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개혁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판을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과 정당법 개혁을 통해 부패세력이 연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특정한 소수 사람에 독점된 정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지난 3월부터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혁하여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어 보고자 준비하여 7월 6일 21개 단체가 함께하여 발족식을 갖고 활동해 오고 있다. 특히 8월 17일에는 '공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꾸려 지역의 정치혁신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와 지방의회 구성을 위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38.3%(2004년), 37.5%(2008년), 42.8%(2012년)을 얻은 정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은 없었지만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여전히 진행되었다. 이처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표의 등가성>이 깨지고, 유권자 개개인의 소중한 한표 한표의 의미가 왜곡되는 선거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승자 독식 구조로 점철되고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선거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보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1인2표제(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 방식의 투표는 유지하되, 국회 전체의석을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받고, 할당된 의석은 먼저 지역구 당선자부터 의석수를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인해 특정지역은 오로지 특정 정당만이 독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와 사표 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지역의 유권자는 어차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당선될 수 없으므로 기권하는 경향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우리 지역의 정치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중선거구제로 적극 재편하여야 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0% 대의 득표율로 울산광역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 전라남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7.14%의 득표율로 89%가 넘는 의석을 차지,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71.34%의 득표율로 95.45%의 의석을 차지하여 지역별 정치독점 구조가 안착화되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여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한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이 지방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 연방의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의 경우 3~4인 선거구제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누구나 가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의 확대, 즉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OECD 34개 국가 중 선거 연령이 만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보가 대중화된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영역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당가입, 선거운동도 청소년들에게 적극 개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행 대통령 선출 방식은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미달되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이다. 전체 국민을 대변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도 정치독점구조가 해소하기 위해 정당설립요건 완화(지역정당인정),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한 여성할당제 강화,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의 독소 조항 폐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및 선거일 법정유급 휴일화 등의 개혁 입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민들에게 빼앗아 자신들만의 리그로 정치를 오염시킨 부패 세력들의 청산을 넘어, 이제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어 정치복합 운운하는 세력들에게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

문화진단

장애인 문화정책의 현주소

정진삼_ (사)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 회장



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메세나(기업의 문화 후원)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흑인들의 감수성을 담아 '흑인음악'의 문화를 만들어 냈듯이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감수성을 담아 '장애인 문화예술'을 만들어내야 한다.

광주는 예로부터 문화적, 예술적 끼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예향의 도시이며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도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도시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고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헌장 제7조에는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문화예술을 이곳 광주에서 '차별없이 향유할 수 있는가'와 문화소외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어떤 '차량할 끼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모두가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도 없어야 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기

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하며 장애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 속에 15개 장애유형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계층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순수예술로 보지 않는 인식이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예술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활동해왔다고 보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야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매개체이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끌어 모으는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장애인 문학, 장애인 미술, 장애인 음악을 비롯한 최근 장애인계에 새로운 문화예술 분야를 형성하고 있는 장애인 연극, 무용(휠체어댄스) 등 장애인 문화예술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는데 제약받지



사진설명

않고 공연장 및 전시장이 제공되었는지, 예술교육지원 등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위하여 2013년 7월 1일자로 제정된 ‘광주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에 근거한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예술활동 욕구에 비해 문화예술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며 소외계층의 하소연을 듣는 관계기관의 자세도 소극적인 ‘No’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Yes’의 마인드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용, 연극, 대중음악공연, 미술전시회, 영화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제약없는 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확충되어야 하고, 각종 공연시 대사와 음악을 설명하는 자막과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음성 해설을 넣어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베리어프리’(무장애 공간)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또한, 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인 장

애인을 대상으로 메세나(기업의 문화 후원)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흑인들의 감수성을 담아 ‘흑인음악’의 문화를 만들어 냈듯이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감수성을 담아 ‘장애인 문화예술’을 만들어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이 높은 곳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분야가 아닐까 생각되지만 고쳐야 할 것은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에게 잠재돼 있는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다양한 장르에서 역량있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는 예술적 끼와 재능을 발휘하여 활동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미력을 다할 것이다. ♪

문화진단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광주

안평환_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마을공동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영역을 등에 업어야 한다.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를 따로 생각하며 활동해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는 협치하며 함께 가야한다. 즉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이장우 가옥

주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체를 일구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마을 현장에서 물결처럼 전개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성에 기초한 것 이라기보다는 강요된 동원식 방법이었어서 시민들이 철저히 소외되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관심 분야별로

참여하는 '시민참여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이제는 '시민참여시대'를 뛰어넘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시민주권시대'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다양화되고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과거에는 주부와 어르신들 중심으로 참여했다면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고 있고, 과거에는 자생단체 중심으로 참여했다면 이제는 자발적인 소모임(주민동아리) 형태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활동내용도 과거에는 단순한 쓰레기 줍기, 꽃밭 만들기 등과 같은 마을정화활동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마을텃밭, 자투리소공원 조성, 마을극단, 마을방송국, 마을박물관 운영, 마을공연장, 공구 공유방, 공동육아,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마을자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광주광역시에서 6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광주시는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참여혁신단'을 새롭게 꾸려 광주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민관협치에 의거하여 전문인력 양성, 마을학교 운영, 커뮤니티공간 조성, 교육공동체 추진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시켜 왔다. 이제는 행정지원의 손길을 차츰 줄이고 마을별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내실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영역을 등에 업어야 한다.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를 따로 생각하며 활동해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는 협치하며 함께 가야한다. 즉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년 100곳의 마을에 10조 예산을 투입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통해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을 지향하며 도시혁신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센터의 개소는 큰 의미를 갖는다.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광주를 위한 첫걸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민관, 민민 거버넌스의 통합적 협치의 거점으로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통해 광주형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센터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연구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컨설팅, 평가와 전문인력 양성과 주민교육 등의 역량강화 사업, 네트워크 조성 및 조직 간 교류 확산,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 광주형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굴, 추진, 지원 등의 종합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연차별로는 1차년도(20017)는 도입기로서 마을공동체 내실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며, 2차년도(2018)는 성장기로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기반의 구축에 중점을 두며, 3차년도(2019)는 확장기로서 마을



양림동 위치한 평민마을과 한희원 미술관 모습

공동체와 도시재생의 주민주도성 확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9월, 마을관련 중간지원조직 통합 설립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광주도시재생기본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 6월 센터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2017년 9월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 지난 10월 27일 개소하게 되었다. 센터가 "시민의 동반자"로서 광주형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모델의 산실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_ 연재 ❶

우리나라 최초 인삼 시배지, 삼밭실을 아십니까?

편집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광주 역사문화 자원 100』(2016년)에서 광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뽑아 실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광주와 담양, 화순을 아우르는 무등산은 일제에 의해 남획되기 전까지만 해도 숲이 울창해 온갖 나무들이 원시림을 이루었다. 소나무,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은 물론이고 병꽃나무, 벌개미취, 뽕나무 등과 같이 이름도 생소한 희귀 야생화도 많았다. 또한 골짜기가 깊어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에는 귀한 약초도 많았다고 한다.

무등산에 자생하는 약초를 기록한 『서석산기』(김호영, 1957년)에 의하면 무등산에는 붉은 영지버섯인 단지(丹芝)와 백령(白苓), 황금(黃苓), 천금목(千金木), 오갈피(五葛皮)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신령스럽고 기이하다고 기록돼 있다. 광주시와 고산연구회가 편찬한 『광주의 전설』(1990년)에는 무등산에 상당히 넓은 산삼밭이 있었다고 한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니, 원효계곡에서 동쪽으로 꼬막재를 미쳐 못 가는 곳이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도 구한다는 최고의 약재, 산삼이 자라는 삼밭실은 서 마지기, 그러니까 600평 정도에 산삼(동삼)이 자라고 있어 ‘삼밭실’이라 이름 지어졌다.

해발 900m 높이에서 재배한 인삼

인삼이 산에서 나면 산삼이고 밭에서 나면 인삼이다. 삼밭실은 무등산의 해발 800~900m 고원에서 자랐으니 산삼이 분명하다. 그런데 서 마지기의 밭에서 자랐다고 하니 인공재배를 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등산 삼밭실에서 인삼이 재배된 것일까?

광주의 산증인인 고 박선흥의 『무등산』(2008)을 보면 “고려 현종(1094~1095)과 숙종(1095~1105)대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순 동북의 모후산(母后山)에서 산삼의 인공 재배가 시작됐고 그곳과 가까운 삼밭실에서도 이 무렵부터 인삼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삼 재배에 관한 역사 문헌인 『증보문헌비고』(1908년)와 『중경지』(1824년)는 우리나라에서 야생 인삼을 인공 재배한 최초의 발상지로 화순 동북을 꼽고 있다. 이 문헌들에 의하면 전라도 동북현에 사는 한 여자가 산에서 인삼을 캐 그 씨를 받아 밭에 심었는데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를 번식시켰다고 한다. 또한 최씨는 삼을 써서 기력을 약하게 한 후에 팔았으니 이것이 홍삼의 시초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밭실을 포함한 무등산 남부의 동북 일대가 인삼의 시배지(始培地)였다는 것이다.

삼발실은 무등산 정상 서북쪽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모이는 곳이다. 덕분에 물이 많고 그늘이 저서 인삼이 자라기에 적합했다. 요즘 밭에서 키우는 인삼은 농약을 많이 해서 더덕만도 못하다고 한다. 천 년 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해발 900m의 삼발실에서 자란 인삼은 그 효능이 어떠했을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지 않아도 가히 명약 중에 명약이었으리라.



삼발실

삼발실에 서려 있는 김덕령의 전설

무등산 삼발실 일대에는 충장공 김덕령 장군과 관련된 전설이 곳곳에 서려 있다. 이를 가리켜 삼전열적(蔘田烈蹟)이라 한다. 이는 원효 8경 중의 제6경에 속한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김덕령에 관한 전설을 원효 8경에 포함시켰다니 김덕령에 대한 광주 사람들의 애정도 대단하거니와 그 전설이 얼마나 흥미로울지 기대가 된다.

어려서부터 무등산에서 말 타기와 칼 쓰기 등을 연마하며 무예를 즐겼다는 김덕령은 삼발실에 삼을 심어 놓고 뛰어넘기 연습을 했다고 한다. 또, 무등산 정상부의 지왕봉에서는 이 바위에서 저 바위까지 먼 거리를 폴짝폴짝 뛰어넘었다는 전설이 있다.

원효계곡에서 삼발실로 올라가는 길에 김덕령 장군이 국난을 예견하고 칼을 주조했다는 주검동(鑄劍洞)이 있다. 실제로 이 길에는 검은 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제철과정에서 불에 달궈진 돌들로 이곳이 제철유적지임을 말해준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김덕령 장군이 이곳에서 칼을 만들 때 산에서 뇌성이 울리고 계곡에서 흰 기운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또한, 금곡동에는 두 쪽으로 깨진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는 김덕령 장군이 주검동에서 만든 칼을 시험해 본 시검바위라는 전설이 있다.

그 많던 산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무등산 삼발실에 전해 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광주 서석동에 만석이라는 총각이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만석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칭송이 자자한 효자였다. 그렇게 두 모자가 단란하게 사는 데 어머니가 돌연 병으로 앓아눕게 되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도 차도가 없자 만석은 산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등산으로 향했다. 매일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무등산 구석구석을 헤매며 산삼을 찾아다녔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100일이 되던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산삼을 찾지 못한 채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데 누군가가 만석을 불렀다. 뒤돌아보니 느티나무였다. 느티나무는 잎을 주면서 어머니께 달여 드리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느티나무 달인 물을 마시고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만석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해 산삼 대신 영험한 느티나무 잎을 준 거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등산 삼발실의 그 많던 산삼은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 산삼 대신 군부대가 30년 넘게 머무는 동안 삼발실의 명성도 지명도 희미해지고 있다. ♪

문화현장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현재와 미래



선재규_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사업단장

기원 전 1천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예술(Art)을 기술(Techne Ars)이라 불렀다. 기원 후 2천년, 현대인들은 미디어아트를 예술+미디어기술(Art and Media Technology) 이라고 부른다. 예술은 다시 3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기술과 만났다. 예술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기술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일상을 변화시켜 왔다.

인간 기계 시스템,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주제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아트 그리고 미래도시, 2017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의 주제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만나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가히 혁명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드론, 3D프린터, 스마트도시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다. 미디어아트도, 미래도시도 이러한 기술과 만나 새로운 예술과 도시를 창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경험한 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미디어아트 국제포럼이다. 제4차 산업기술과 예술을 융합하여 공연과 전시 형태로 표현한 9개국 27개의 작품, 그리고 조티 오사그라하(Jyoti Hosagrahar)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장과 도미니크 롤랑(Dominique Roland) 앙기앵레뱅 아트센터 대표 등 7개국 8개 도시의 전문가들과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미래도시 담론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마련해 주고 있다.

2014년 12월 1일, 광주는 유네스코로부터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받았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도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세계 각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본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017년 10월 말 현재 13개국 14개 도시가 지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광주가 유일하다. 광주가 지속가능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아트는 기초예술의 창의역량을 기반으로, 이를 첨단 영상 및 광산업과 융합한 지식집약형 제4차 산업경

광주가 지속가능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아트라는 기초예술의 창의역량을 기반으로, 이를 첨단 영상 및 광산업과 융합한 지식집약형 제4차 산업경제를 지향할 때 가능할 것이다.

제를 지향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법적 근거로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전담조직으로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단 설치, 기반시설로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 3단계 전략을 준비하여, 2017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은 2016년도에 국·시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아트스페이스의 여유 공간을 활용, 시민들이 쉽게 미디어아트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홀로그램극장, 미디어놀이터, 미디어338, 디지털갤러리,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홀로그램 파사드 등 6개 특화 공간을 구축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하였다. 기존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공간과 함께 한마디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 오면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미디어아트 전시와 공연을 항시 관람할 수 있는 틀을 갖춘 것이다. 이 결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 6만여 명의 내·외지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러한 노력에 유네스코도 우리 광주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부코디네이터 도시 지정으로 화답했다.

2단계 사업인 AMT(Art and Media Technology) 센터 조성 사업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말경에 설계에 착수할 여건을 갖추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MT센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콘텐츠 생산기능 중 기초예술 부분을 보완하면서, 국내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안정적 창작활동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및 과학자 그리고 세계 각국 미디어아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과 미디어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연구·기획·개발·교육·공연·전시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핵심시설이다.

3단계 사업인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은 광주 전역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특화 권역을 조성하여 이를 벨트화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2017년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전문기관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가 진행되는 등 2018년부터 국고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 작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창의도시 전략과 부합한다. 그리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제4차 산업혁명 선도정책과도 부합한다. 예술(Art)과 미디어 기술(Media Technology)의 융합 형식인 미디어아트에 기반 한 도시발전 전략은 미래도시의 지향 모델이다. 그 중심에 우리 광주가 있음을 잊지 말자. 

문화현장

광주역사문화자원 사업, 스토리텔링 토대를 마련하다



위주영_재단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문화콘텐츠 사업이 창조산업을 이끌며 스토리텔링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유산, 역사적 사건, 전설 등에서 모티브를 찾은 이야기가 캐릭터, 애니메이션, 출판물, 문화상품으로 개발되거나 역사문화교육, 장소마케팅, 관광산업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각 지자체, 문화관광 관련 시민문화예술단체는 이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지역자원을 스토리로 개발해 연극, 오페라 등의 창작공연을 진행하거나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이 있다. 매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등 OSMU로 발전시켜 세계적 킬러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스토리를 공모하고 있다. '신화창조 프로젝트'로 불렸는데 전국 창작자들이 도전하고 싶어 하는 무대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여기에 더 나아가 '스토리움'이라는 플랫폼을 마련해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국학진흥원도 2015년부터 스토리테마파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창작자들은 지역의 전설, 암각화 같은 문화유산, 인물, 사건 등에서 창작소재를 찾아 스토리를 구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DB자료 구축사업들은 이 같은 창작사업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일례로 조선왕조실록 DB가 구축되어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 된 이후 창작자들은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며 창작 소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정부, 기업, 단체 등이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사업이 교육적,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와 이득을 거둬내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관, 사업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창작자들에게 원천자원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017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수행한 사업이다. 2016

지금까지 정부, 기업, 단체 등이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사업이 교육적,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와 이득을 거둬내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관, 사업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창작자들에게 원천자원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년 조사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광주역사문화자원 가운데 스토리텔링을 통해 웹툰 50개를 제작했다.

이는 2016년 발간한 ‘광주역사문화자원 100’ 가운데 50편을 추린 것으로 광주호, 광주천, 산동교, 학동팔거리, 남광주역과 남광주시장, 사직공원, 광주극장 등 자연지리, 인문지리, 사회경제,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 중 일부를 콘텐츠 시대에 맞춰 15컷 내외의 웹툰으로 만든 것이다.

웹툰은 2017년도 사업으로 함께 제작한 광주역사문화자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올려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찾아 읽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광주에서 진행되어온 여러 사업 결과물 또는 단행본, 기사 등 기록물을 토대로 수집했던 광주지리, 문화유산, 성씨인물, 경제사회, 종교복지, 교육문화, 생활민속, 설화문학 등과 관련된 1,000여 개의 자원을 DB로 구축했다.

1,000개 자원은 8개의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검색기능을 통해 광주의 역사문화 관련 자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 지난해 단행본으로 발간했던 ‘광주역사문화자원 100’ 스토리를 올려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미진하거나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생략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1,000개 자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한 자원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광주는 조선시대 거읍이었으나 남아 있는 유물은 거의 없다. 근현대 건물, 시설 등도 원형이 훼손되거나 철거된 사례가 많고, 도심재생사업이나 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없어지거나 이전된 경우도 있다. 때문에 세대가 지나면 역사문화가 단절될 가능성도 크다.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은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 수집하여 기록으로 남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원정보가 부실하거나 콘텐츠로서 재미는 부족할 수 있지만 최소한 현 시점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기록이며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원천자료로서 최소한의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지역의 창작자, 문화기획자, 교육자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교육, 문화, 관광, 콘텐츠 산업에 활용해 ‘스토리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문화청년그룹

청년단체들, 수혜대상에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 멋진 세상을 상상하고, 현실화하라! 상상실현 네트워크

김서영_ 상상실현 네트워크 간사



1 상상실현 네트워크 모임 2 청년들의 문화활동 모습

청년들이 사업대상, 수혜대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더 멋진 세상과 근사한 삶을 청년들의 상상력과 에너지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능동적이고 확장적인 의미를

가진 '높은 문화의 힘' 이 아닐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역의 32개 청년문화단체들이 의기투합해 지난 8월, '상상을 현실로', '연대와 협업을 위한 젊은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상상실현 네트워크'를 출범하였다.

청년단체들, 협업과 연대를 통해 수혜 대상에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32개 청년문화단체는 지난 4월과 6월 '19대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대선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추진과제'와 'KT&G 상상마당 광주 조성'을 함께 공개 제안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상상실현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다. 상상실현네트워크는 시민들의 상상과 바람을 단순히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실화' 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동한다.

멋진 세상을 상상하고, 현실화하라! 대화모임 매월 개최

본 네트워크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4시부터 늦은 밤까지 참여단체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상상실현 대화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상상실현 대화모임은 지역의 변화를 상상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상상실현 모임>, 각 단체의 활동내용을



청년들의 문화활동 모습

공유하고 서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집단지성 모임>, 문화·사업혁신·청년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모임>의 성격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본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단체의 기능보다는 '연대를 위한 느슨한 플랫폼, 명석'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 안에서 각 단체들이 가진 상상을 펼쳐 보이고 그 상상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모여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끈끈한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세대의 협업과 연대가 활성화되고, 수혜대상으로서의 청년에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역할이 변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조 만들기에 초점

상상실현 네트워크는 '문화생태계'와 '청년활동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기본과제로 하고 있다. 정책은 분야로 분리되지만 청년들의 삶은 분야로 분리되지 않고, 문화의 영역을 구분하는 일 또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만큼 문화의 의미가 크게 확장되었다. 상상실현 네트워크는 문화의 역할에 능동적이고

확장적인 의미를 부여해 젊은 에너지로 세상을 멋지게 디자인하는 일이라면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활동하려 한다.

현재, KT&G에 상상마당 광주 조성을 공개 제안하고 유치 운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인건비 책정, 각 자치구별 청년 거점공간 조성, 민선 6기 문화정책 평가 등 여러 TF가 구성돼 활발하게 의제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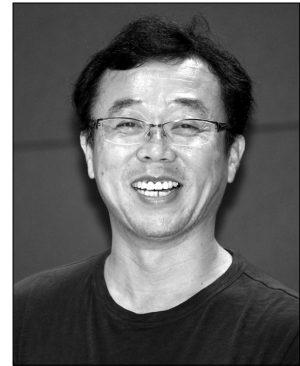
지역의 멋진 변화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의 연대와 협업에 시민들의 큰 응원과 격려 바란다. ♪

〈상상실현 네트워크(32개 단체)〉

(사)청년문화허브, (주)나미야, (주)쉐어하우스공명, (주)에스홀리데이, (주)엔덤, (주)엘리파이프, (주)잇다, (주)청년미래전략센터, (주)틀아이피1%공작소, (주)휴이컴퍼니, (협)아모틱, (협)코끼리, (협)플리마코, (협)이공, DNA디자인스튜디오, 광주청년문화의집, 동네중인, 디자인주스, 디자인컴퍼니 바비샤인, 모노리스, 문화공동체 한판, 문화기획단 유별라, 문화네트워킹그룹 다정다감, 문화놀이터 가을, 문화아지트 에포케, 스토리박스, 오월길문화기획단 달Comm, 와사비, 청년문화콘, 청년파티기획그룹 화이트랩, 파크인터네셔널, 하랑 (이상 가나다순)

문화톡톡

지역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문화보존 제언



안태기_ 재단 시민문화교류위원장,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전라남도 축제평가위원으로 책무와 의무감으로 전라남도의 이곳저곳 축제장을 찾아 여러곳을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여름에 남도의 대표적 여름축제인 목포항구 축제, 정남진 물 축제, 강진 청자축제를 다녀오게 되었다. 위의 세 축제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표적인여름 축제들로서 자부심과 지역정체성에 열정과 성의를 다하는 축제들이다.

이 세 축제들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맞아 남도의 유명관광지와 맛갈 나는 음식이 어우러져 많은 방문객이 축제를 찾는 곳이다. 특히 목포항구축제는 '목포는 항구다'라는 지역브랜드를 토대로 목포항의 파시(바다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문화와 남도 미항이라는 두 가지 콘셉트로 개최되었다. 이제는 원도심이 돼버린 목포항과 주변 어시장의 공간을 활용하여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포항 파시문화를 상품화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하는 목표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또한 정남진 장흥 물 축제는 특별한 도시브랜드나 특산물이 없는 장흥군에서 고육지책으로 탐진강과 탐진댐을 소재로 물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성공한 축제로 알려져 있다. 여름철 피서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물놀이체험과 지상 최대의 물싸움 '살수대첩 퍼레이드'를 핵심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있다. 일탈성과 오락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가장 축제다운 프로그램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최근 지역축제에서는 대규모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다. 진행된다 해도 원형을 유지하기 보다는 연출중심의 보여 주기식에 그치고 있다. 해당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축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축제의 개념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산물이며, 이를 공유하는 놀이의 장이다.

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강진청자축제는 지난 15년 동안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국내 대표축제이며, 팔만대장경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인 고려청자의 본산이며, 국내 최대 청자 가마터가 있는 강진은 이러한 전통문화와 역사성을 토대로 가장 한국적인 소재의 축제이기도 하다. 특히 한여름 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고려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동 동선에 차양시설과 축제장 곳곳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마련하는 등 방문객 편리를 위한 서비스를 높이고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즐겨먹었다는 바지락초무침 비빔밥은 '대통령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에게 소개되어 특별한 여름보양식으로 유명하다.



2017 광주예술난장

장흥군은 물 축제이전에 보리를 컨셉으로 하는 문화축제가 있었다. 이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은 140년을 이어 온 지역전통놀이인 고싸움이였다. 그러나 고싸움은 명맥 위기에 처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거운 고를 짊어질 젊은이가 부족해서이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최소 500명의 장정을 동원하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일본의 마쓰리(일본 전통축제)가 위기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본의 마쓰리도 대규모 가마 퍼레이드가 핵심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짊어질 젊은이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축제에서는 대규모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다. 진행된다 해도 원형을 유지하기 보다는 연출중심의 보여 주기식에 그치고 있다. 해당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축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축제의 개념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산물이며, 이를 공유하는 놀이의 장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축제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급격한 감소로 도시화되고 있으며, 축제의 산업화는 관광객의 편리함에 맞추어지고 있다. 강진 청자 가마터 주변에는 임대한 에어컨 수십대가 종일 돌아가고 있었다. 방문객들에게는 시원함을 선사하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 옛날 뜨거운 가마 옆에서 청자를 굽던 장인의 정신은 느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장인들의 순결하고 고요한 마음은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성공한 지역축제는 글로벌 축제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적 편리함과 인위적으로 연출 된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인을 끌어 모을 수는 없다. 투박하지만 불편함이 있는 현장감과 전통문화를 그대로 재현하는 축제가 더 우리다운 축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느덧 문화관광 축제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목을 매고 있다. 지역의 사정과 문화가 다르지만 전국의 축제를 하나의 평가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보니 이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러한 빈 자리를 외부에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가 걱정스럽다. 지속적인 축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불안하다. 과연 그 축제의 본질인 그 지역만의 고유의 특성과 전통성을 알게 하고 축제로 표현하여 조상들의 얼과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 하고, 그런 역사적인 문화도 보존 차원에서 지켜나가야 과제 일 것이다. ♪

문화톡톡

전남대학교 민중항쟁도 벽화그리기

장여진_ 전남대 민중항쟁도 벽화복원준비단



작될 듯 하니 함께 고생해보자' 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건너 건너 들었던 벽화복원이었고, 민동 차원의 추진이니 실무단의 규모가 꽤 될 것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되겠지!', 다른 고민할 이유도 없으니(목숨이나 구속을 각오할 필요도, 모두의 반대를 뚫어내야 할 고단한 싸움도 필요치 않은) 냉큼 '콜~' 을 외쳤습죠.

첫 회의의 단출함에서 오는 당혹과 두려움, 게다가 시간이 얼마 없다???

이례가 없었던 촛불에 의한 순풍이 불어오던 시기, 그동안 복원의지를 북돋아줬던 많은 단체와 시민, 그러나 건물의 노후에

제가 지내는 이곳은, 살아온 인생 중 공식적인 최대 고비를 넘기는 중인 청춘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막 모의고사를 치른 뒤 핏기 없는 얼굴로 한숨을 쉬고, 멍하니 창밖을 보다 계단을 바빠 내려가기도 하고, 저 위층 어딘가에서 고향을 쳐대기도, 저 아래 적막한 정독실에서는 우장창 뭉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재수 입시학원입니다. 하루 10시간 많게는 15시간을 지리강사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창 밖에서 불어 들어온 차가운 바람에야 가을 곧 겨울을 알게 되는 지난한 시간 속에, 웃을 수 있는 반가운 이름이 부재중 전화에 찍혔고... 지금 이 글을 씁니다.

이런! 벽화복원 참가기(?)를 위한 것 같으나, 얼마 지났다고 벌써 기억이 가물하고 무슨 말부터 꺼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벽화복원 이야기는 기록물로 출간될 책에 기대보기로 하고 복원실무단을 하게 된 이유와 저의 일상 이야기로 대신하려 합니다.

여름인 듯 뜨거웠던 5월, 조퇴 후 찾아가 전남대 민주동 우회(이하 민동) 합동 참배에서 '본격적으로 벽화복원이 시

서 오는 존폐위기, 예상을 웃도는 복원예산마련, 그리고 우리는 직장인, 그보다도 우루사 없인 버티기도 힘든 청춘이긴 너무 지나버린 우리,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첫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서로의 얼굴에서 느낀 기시감, 지난 총학생회 시절 못해낼 것 없었던 소신, 열정, 책임감이었습니다.

대중의 힘으로 이뤄냈을 때 가장 빛남을 아는 이들이니 벽화복원의 의의와 방향은 광주시민 모두에게로 향했고, 쉬운 길이 아닌 함께 가는 길을 택하다보니 고단함도 있었습니다.

마냥 신나기만 하던 준비단의 통쾌한 추진력으로 예정보다 크고 신나는 판을 만들다 보니 막상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우려섞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숨막히 듯 더운 날씨처럼 거북이걸음을 걷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토론배틀과 그림에도 지체할 수 없는 자문과 자료수집, 연락작업, 선전홍보, 어느새 회의날짜 하나 잡는 것도 어려운 각자의 일상들...

소녀상과 병행하느라 정신없던 재덕선배, 날 새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던 중수와 옆지기 산이, 연락작업으로 핸드폰비가 생활비를 초과할 지경에 이른 선화언니, 직선출신다운 말발과 추진력으로 우릴 힘들게 하기도 방패막이 되주기도 한 재훈오빠, 늘 묵묵히 웃으며 나타났다 피곤에 찢어 돌아가는 환자이자 민동살림꾼 영일이, ‘지저’ 한마디에 불꽃용접도 하는 멋진 바다 언니, 이런 우리와 함께 하느라 가장 힘들었을 테지만 웃음으로 이겨낸 재학생 실무 다예.

한없이 높아진 동우들과 시민들의 기대감을 채우기엔 무척이나 부족한 저희였지만, 사람 속에서 답을 찾던 습관대로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나고 부딪히다보니 어느덧 채색을 하는 8월은 왔고, 400여명이 채색에 참여해 제막식걸개그림도 벽화크기로 직접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개강프랑 정치프랑도 쓰고, 더 잘해보자는 욕심도 예산마련, 촉박한 시간, 긴장감 넘치는 토론과 함께 훌쩍 흘러가버렸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찾아준 사범대 선배의 토닥임이 부끄러웠지만 함께 올라다 본 반쯤 채색된 전남대 사범대 1호관 벽화는 뭉클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벽화의 의미가 선명한 채색만큼이나 생생하게 와닿아 벽쳤고, 그때 90년에도 그랬겠구나 하는 상상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실 저는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푸르른 봉지와 백색의 도서관 옆 사범대 1호관을 지나야 학생회실을 만나던 사범대 졸업생입니다.

〈광주민중항쟁도〉가 그려진 1호관은 갓 대학을 입학한 저에겐 근대유적에서나 불법한 낡음과 유명사찰 입구의 사천왕처럼 괴이한 느낌을 주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나마 1호관 지나 2호관 바닥의 참교육마크(깜직한 웃는상 이쥬)가 마음의 안정을 주곤 했고, 소위 운동권의 모습이 저에게 그 벽화의 모습으로 각인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벽화의 이름은 몰랐지만 매일 지나다니다 보니 어느새 익숙하게 눈에 들기 시작했고, 도청과 밥 짓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자 이내 ‘아... 5·18...’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면 더 잘 보이고 더 느끼게 되는 법! 5·18-6·10-민주-통일로 이어지는 모습과, 벽화가 이리도 고되게 때론 강하게 그려진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겠더군요.

이 벽화를 단순히 무섭다고 하던 학생들과, 표현이 과해 부담스럽다던 광주시민들에게, 〈제대로 보면 애썼다 안아주고 싶은 벽화, 피서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선 학생들의 투박하고 치열했던 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지켜낼 벽화〉로 이번 복원과정을 통해 함께 느끼고 싶었습니다.

교과서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 오늘은 과거가 되고 내일은 현재가 되어 흐르는 시간 속에 기록되고 보존되어 전해지는 〈역사〉.



당시의 생생한 현장은 보존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왜곡되어 미래에 온전히 전해질 수 없고, 더욱이 쌓았다 부수고 다시 쌓기 세계신기록 경쟁중인 현재 우리나라라면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지켜내기도 전에 흔적 없이 사라질 벽화라는 건 자명한 일.

그 순간 속에 있는 내가, '사라지는 역사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키려 노력할 것인가!'

세계지리 모의고사에 '로스엔젤레스의 위대한 벽'이 예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긴 벽화 중 하나로 꽤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역사(선사시대-인디언원주민-침략자들의 식민지 개척-전쟁-과학자-무기-세계대전-이민노동자들-베이비붐-인종차별-시대의 예술가-올림픽 등)를 도시구조물인 수로벽에 여러 작품으로 학생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졌기 때문이라 합니다.

부끄럽다고 감추지 않았고, 가슴 아프다고 지우지 않았으며, 자랑스러움과 추억 모두를 각각의 상황에 맞는 표현방법으로 그려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벽화 앞에서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전히 무섭고 낯아 흥물스러운가요?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눈물나는 투쟁이 보이시나요?

먼 훗날 독립군의 역사와 함께 거론될 가치 있는 역사가 아닐까요?

복원의 노력까지 함께 담긴,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광주역의 역사가 아닐까요?

역사의 가치는 우리가 사는 현재를 제대로 남겨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5·18을 가슴에 담고 6·10으로 길을 내어 촛불로 만개한 시대 2017년!

우리는 촛불을 보았고, 흔들릴지언정 꺼지지 않는 가슴 속 촛불 하나씩을 담고 살아가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990년의 <광주민중항쟁도>가 2017년 새옷을 입고, 다가올 새시대에도 변함없이 모두를 지켜봐주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영광이었고 과거를 현재화시키려는 의지의 사람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박수를 보냅니다. ^^

응답하라 1980

2017년은 1980년에 닿아 있습니다.

촛불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려는 자들에게 국민의 힘으로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5월 전야제가 5·18광장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으며,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금남로 행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구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7년 구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찍은 김향득 다큐작가의 사진을 실습니다.

— 편집자주



사진 김향득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세 번째 이야기 열려...
생통포럼 '민선 6기 문화정책과 사업을 논(論)하다'



광주문도협이 주최하고 우리 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한 '민선 6기 문화정책과 사업을 논(論)하다'를 주제로 한 포럼이 12월 20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렸다.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세 번째 이야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선 호남대 교수가 사회로 박경섭 전남대 5·18연구교수의 발표와 정민곤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송영은 광주예총 사무처장, 정순기 광주연극협회장,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이정현 1% 공작소 대표가 나섰다.

재단 송년의 밤, 성황리에 열려 양형렬 이사 등 감사패 수여

2017 재단 송년(회원)의 밤 행사가 지난 15일(금) 오후 6시 30분에 김대중센터 별관 2층 델리하우스 장미홀에서 50여명의 재단 임·회원 기타 유관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7년 재단 활동보고 및 2018년 재단의 주요 사업 보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송년의 밤 행사는, 풍성한 먹거리와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올 한해 재단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주신 양형렬 이사, 최형주 이사, 이명란 회원에게 감사패 수여식도 병행하여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CT연구원 광주 설립,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



재단은 지난 11월 21일 오후 4시, 재단 회의실에서 'CT연구원 광주 설립,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기훈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CT연구원 설립 추진 실행위원회 김상운 위원장(운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이철우 전남대 교수, 박순보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장, 신현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과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연구원) 광주 설립이 이야기 된 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획 좌담〉을 통해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제와 지역에서의 준비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12월에 발행되는 『창』 40호 특집기획에 지상중계 됐다.

재단소식

2017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2차 자문회의 개최



2017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의 제2차 자문회의가 천덕염 전남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이동순 조선대 교수,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6일 오전 11시 동구지역 식당에서 개최됐다.

자문회의는 김덕진 책임연구원(광주교육대 교수, 재단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의 경과보고와 연구개발 용역을 맡은 (주)위치스 담당자의 사업추진 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았다. 자문위원들은 웹툰의 주요 대상과 수준의 균질성 확보 홈페이지의 가독성과 가시성 확보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에서의 오류 방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17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은 올해 말까지 광주역사문화자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역사문화자원 1,000개와 100편의 스토리텔링에서 50편을 선정해 웹툰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 10주년 기념책자 『광주정신의 역사적 기원과 미래적 가치』 발간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 10주년 기념책자 『광주정신의 역사적 기원과 미래적 가치』가 발간됐다.

우리 재단이 엮고 광주 북구청이 발행한 이 책은 10년 동안의 강연 16편을 뽑아 엮은 강연집으로, 300부가 제작돼 각급 기관 및 개인에게 배포됐다.

이 책은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 일



지와 사진을 실고 있으며, 광주정신의 역사적 기원과 발자취, 광주정신을 찾아서,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광주정신, 광주정신의 미래적 가치를 찾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책자 발간으로 '광주정신 계승'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 북구청 제1기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 성황리에 마무리... '광주정신은 공동체의 미래다' 주제로 열려



재단은 '광주정신은 공동체의 미래다'를 주제로 제1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을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4차례의 강좌와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첫 강의를 '소수자와 공동체,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를 주제로 윤수종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제2강좌(9월 13일)는 <야생초편지>의 작가 황대권 생명평화마을 대표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동체'에 대해 강의하고, 제3강좌(9월 20일)는 말바우 아집으로 알려진 마당극배우 지정남씨가 강사로 나서 세월호 3년간의 끈끈한 우정과 연대의 공동체를 주제로 '3년의 사랑'에 대

재단소식

해 이야기 한다. 마지막 제4강좌(9월 27일)는 '공동체와 광장의 노래'를 주제로 정유하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맡는다. 올해 '제11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은 9월 28일 경남 남해로의 역사문화탐방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창』 편집위원회 개최



지난 9월 11일(월) 12시에 재단의 문화담론지 『창』 편집회의가 김정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 39호 평가 및 40호 기획 방향과 내용을 대해 논의를 하고 늦어도 12월 초에는 발간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기간지로 발행되는 『창』이 10여년에 걸쳐 지령 40호를 앞두고 있는만큼, 시민문화재단으로서의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들여다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하는 특별 좌담회를 열어 지상중계기로 하였다.

• 연대

재단 공동주관 생통교육, 성황리에 마무리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알고 들여다보기” 주제로 6차례의 강좌와 광주 역사문화탐방 다녀와

재단 공동주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생통교육이 충남 공주 문화탐방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총 여섯번의 강좌와 11월 2일(목) 수강생 40여명과 함께 '충남 공주 백제문화탐방'을 마지막으로 생통교육이 마무리됐다.

'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생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강좌는 • 제1강좌 10월 12일(목) 오후 3시, 「시대정신의 실천지, 광주의 역사와 문화원형」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 • 제2강좌 10월 17일(화) 오후 3시, 「광주(光州), 전라도의 민속문화」 박종오(민속학자) • 제3강좌 10월 19일(목)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와 현대미술」 (김은영 광주비엔날레 폴리사업부장) • 제4강좌 10월 24일(화) 오후 3시, 「'광주 5월의 시'의 문학적 항거」(채희윤 광주여대 교수) • 제5강좌 10월 26일(목) 오후 3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위하여」(강위원 투계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대표) • 제6강좌 10월 31일(화) 오후 3시, 「도시공간변화를 위한 도시재생과 광주 폴리Ⅲ」(천의영 경기대 교수)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한편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엄수경 공동대표의 해설과 함께 진행된 이번 문화답사는 아침 8시 출발 후 마곡사, 무령왕릉, 산리고분군, 국립공주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 공주역사영상관, 우금치전적지 등을 차례로 탐방하고 저녁 6시 30분 광주로 돌아왔다

• 조직

재단 12월 정기 임원회의

재단은 지난 12월 7일 오후 5시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사

재단소식



업 및 조직, 재정보고와 함께 •재단 송년의 밤 최종 점검 • 2017년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송년의 밤과 관련해 감사패 수상자 등을 최종 조율했다. 한편 2018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대만 역사문화탐방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참가자 모집 상황을 점검하고 재단 임원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2017년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재단 전체 임원 연석회의 개최



지난 11월 29일(수) 17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2017년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재단 전체임원 연석회의가 열렸다. 20여명의 재단 임원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는 2017년 재단 송년(회원)의 밤 개최 건 재단 고문 선임 건 2018년 사업,조직, 예산 승인 건 등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우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가 승인하되 임원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와 재단 임원회의를 거쳐 2018년 2월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회의에서 최종 승인으로 하였다.

제3차 후원이사회 개최 재단 송년의 밤 프로그램 및 회원회비 세칙 개정안 논의



2017년 제3차 후원이사회가 지난 10월 30일(월) 18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12월7일(목) 예정된 송년(회원)의 밤 프로그램과 회원회비 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재단 임회원의 소통과 교류,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달, 2017송구영신 및 2018년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내용을 구성되는 이번 행사는 가능한 재단 창립 회원, 최근 2년 이내에 가입한 회원들을 중점 홍보, 조직하여 행사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재단 회원 중 평생회원의 기준이 현재의 재단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평생회원의 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지 회원이라 하더라도 회비 납입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 되는 회원은 평생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재단 10차 임원회의 열려



재단소식

재단 10차 임원회의가 지난 10월 10일(화) 17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추석 연휴 다음날 개최된 모임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재단 전체 임원회의 개최와 다룰 내용, 우리 재단이 기획하는 광주문도협 생토포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재단의 이사, 후원이사, 운영위원이 참여하는 전체 임원회의는 2017년 송년(회원)의밤 개최 2017년 재단 평가 및 2018년 재단 사업,조직,예산 재단 임원 추천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29일(수) 18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제4차 전체 운영위원회 개최



재단 4차 정기 운영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월) 18시30분에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재단 미래구상 TF팀 제안,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 참여, 지역문화포럼 개최, 기타 지역의 문화 현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재단 미래구상 TF팀 제안은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되 운영위원회와 회람을 전제로 12월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는 도시공간 분야에 관련 있는 재단의 전문가를 토론자로 적극 추천기로 하였다. 한편, 지역문화포럼 개최는 CT연구원 설립 준비와 관련 민,관,산,학 협치 조직 구성이 준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제와 형식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회원소식]

백수인 이사장, 광주문학상 수상

광주문인협회(회장 임원식)는 12월 제30회 광주문학상 수상자로 백수인(시인), 오승준(시인) 임인택(수필), 올해의 작품상으로 조민희

(시조시인)씨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백수인 시인은 시집 『바람을 전송하다』에서 '서정'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벗어던지는 탁월하고 처절하고 철저한 존재론을 형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KT타워 4층에서 열린다



이명란 회원, 지하철 북콘서트



지하철 책책북북 '북 콘서트'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시 금남로 4가역 지하철 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북 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광주시 동구문화원 주관으로 열리며 '엄니는 시의 씨앗이어라'라는 타이틀로 지도강사인 이명란 시인이 강연에 나선다. 이명란 시인은 화가이자 낭송인으로 활동중인 가운데 『오색찬가』 1~5집 등 다수를 펴냈으며, 광주여성재단 사회복지분과 이사를 맡고 있다.

이종범 회원, 한국학 호남진흥원 초대원장 선임



광주시와 전남도는 30일 한국학 호남진흥원 초대원장으로 조선대 이종범(사진) 교수를 선임했다. 이 초대원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석·박사과정을 거쳐 1989년부터 조선대 인문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초대 원장이 지역민의 공감과 호응을 끌어내고, 한

회원소식

국학 주제와 분야 선정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 학자들을 중심으로 민간 소장 자료를 수집·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설립이 추진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4년 10월 광주·전남 상생 과제로 호남진흥원 설립을 채택하고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행정안전부 심의 통과, 설립 및 지원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 <광주일보> 발췌

윤만식 이사, 2017년도 자랑스런 북성인상 수상

광주북성중학교총동창회(회장 윤목현)는 지난 25일 '북성인한마음송년음악회'에서 2017년도 '자랑스런 북성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자는 윤만식(17회)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조정래(20회) 광주광역시 교통 경제인단체협의회 회장, 위용인(21회) 위드프랜 대표디자이너, 나상근(21회) 도미노피자 광주대표가 수상했다.



- <무등일보> 발췌

박신영 운영위원, 서연정 편집위원 국제펜광주문학상 수상자 선정

국제펜클럽 광주시위원회는 '제14회 국제펜광주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박신영의 「탈출」, 시조시인 서연정의 「광주에서 꿈꾸기」, 올해의 작품상에 수필가 황옥주의 「마음의 그림자」를 각각 선정했다. 박판석, 서용좌, 조숙형, 김정희, 김중 등 심사위원 5명은 최근 심사를 열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상에 선정된 박신영 소설가의 「탈출」은 소설집 『탈출』의 표제작으로 소박데기의 삶을 사는 인물의 남은 삶을 조명한 작품이다. 서연정의 「광주에서 꿈꾸기」는 여섯 번째의 시조집으로 창작의 역량이 녹아 있는 다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서 시조시인은 1997년 중앙일보백일장과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조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입문했다.

- <광주일보> 발췌



안평환 회원,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취임

"시민들에게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아직도 생소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삭막하고 사람이 사라진 도시공간이 예전처럼 북적이고,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며 사람 냄새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주축이 돼 노력하겠습니다." 25년간 광주 YMCA 사무총장, 살기좋은 광주만들기 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안평환(50) 초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이 '도시 광주와 공동체 재생'이라는 과업을 받아들였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왜곡되면서 고밀·고층 개발의 장이자 사익 추구의 각축전이 돼버린 도시 광주에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머물게 하며, 시민의식을 높이고, 도시 내 공공성 향상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광주일보> 발췌

진시영 운영위원, 다큐 르포 '유럽 그랜드 아트투어'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상설 전시



올해는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윈스터 조각프로젝트가 10년만에 동시에 개최된 의미있는 해였다. 'Grand Art Tour'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현지를 방문했고 진시영 작가는 생생한 현장 모습을 담은 작품을 전시했었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기증한 '2017 Europe Grand Art Tour 다큐 르포&미디어 아트'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에 상설 전시중이다.

'Europe Grand Art Tour 다큐 르포&미디어 아트' 세계적 행사

회원소식

를 현장감 있는 다큐멘터리 형식과 여행 중 생긴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담은 영상 작품. 영상은 2007년과 2017년에 진행된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2년마다 개최),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매년 개최), 독일 카셀 도큐멘타(5년마다 개최)와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10년마다 개최) 등 3개국 4개 행사를 담았다.

영상작품은 아날로그 TV 38대를 사용해 빠른 속도의 화면 구성으로 연출해 행사 현장의 예술적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미디어아트 아카이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 조성된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 플랫폼' 6개 공간 중 하나다. 관람료는 무료,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 <광주일보> 발췌

안태기 시민문화교류위원장, 『이벤트·축제의 통합 기획실무』 발간



우리나라의 이벤트 산업은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성장을 하였고, 또한 '2002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각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벤트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이미지 향상 및 지역 홍보, 소비자 또는 주민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산업과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바라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벤트 산업 발전에 부응할 만한 이론 정립과 체계적인 지침서가 매우 부족하고, 지나치게 현장 중심적으로 편향되어 이벤트 업계의 실무 담당자들과 이벤트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전문 연구원, 그리고 학생들이 이벤트에 관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적 틀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참가하는 이벤트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마케팅·광고와 같은 이론적 체계를 하나하나씩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일이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벤트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벤트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이벤트기획에 관련된 서적들은 대부분 공연, 행사기획을 중시하며 이벤트의 예술적 개념에 치우쳐 있어 보다 통합적, 전략적으로 이벤트를 활용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전고필 회원, 양산보에 직접 듣는 소쇄원의 유래와 풍류 총감독, 프로그램 '소쇄처사 양산보와 함께 걷는 소쇄원' 진행



민간원림 소쇄원에는 멋스러운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선비들과 두루마기를 갖춰입은 여인과 학동이 등장했다. 명승 제40호인 담양의 소쇄원을 양산보와 함께 거닐며 체험하는 '소쇄처사 양산보와 함께 걷는 소쇄원' 프로그램 프레스 오픈에 참가한 이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PM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프로그램은 양산보의 생애와 소쇄원의 속살을 체험하고, 소쇄원 조성 당시의 의도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참가 신청을 받아 선정된 참가자들이 1550년대 선비와 학동, 여성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은 후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로 설정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소쇄원 경내의 이모저모를 묻고 답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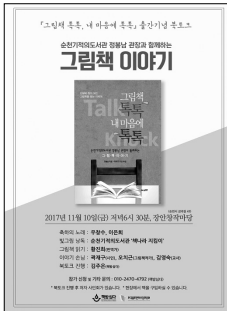
양산보의 역할을 맡아 체험을 주도할 전문가로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한다. 건축분야의 천득염, 김재웅 교수를 비롯해 국문학 분야는 김대현, 임준성 교수가, 동양철학은 전남대의 이향준 박사와 금곡서당의 서상일 훈장, 조선대학교의 안동교 박사가 수행한다. 또 애일당의 강기욱, 포플레이의 나익승씨,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 소쇄원 48영을 화폭에 담아냈던 하성흠 화백 등도 양산보 역을 맡는다. '소쇄처사 양산보와 함께 걷는 소쇄원'은 12월 2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 <광주일보> 발췌

정봉남 회원, 『그림책 톡톡, 내마음에 톡톡』 출간 기념 북콘서트

'좋은 책을 나누는 마을의 서재, 마실 나온 가족들의 책 놀이터, 마음이 쉬어가는 밤의 도서관.' 몇년 전 광주 풍암지구에 문을 연

회원소식



‘책 문화 공간 봄’에 들렀을 때 도서관 지기 정봉남씨에게 들었던 도서관의 비전이었다. 그 때 도서관을 가득 채운 책들이 탐났다. 많은 도서관과 북카페를 다녀봤지만 ‘딱 읽고 싶은책’이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이었고, 3,500권 중 대부분이 그녀의 책이라는 말에 더 관심이 갔다. 광주 초초 민간 어린이도서관 ‘아이숲어린이도서관’ 등을 거쳐 현재

순천 기적의 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정봉남씨는 무엇보다 어린이 책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광주일보 ‘월요광장’에 도서관과 책읽기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는 정봉남 관장이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톡톡 내 마음에 톡톡』을 펴냈다.

— 〈광주일보〉 발췌

있던 곳이 아르코공연연습장으로 새롭게 단장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960-3685〉

— 〈광주일보〉 발췌

고 문병란 전 이사장, 시로 한·일 ‘오월정신’ 나누다



문병란 시집 『직녀에게·1980년 5월 광주』 일본어판 발간을 기념하는 한일심포지엄이 최근 주오대 다마캠퍼스에서 열렸다. 한국에서 문병란 시인의 장남 찬기씨, 일월서각 백명수 대표 외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황일봉 이사장) 회원 10여명이 참가해 『직녀에게』, 『희망가』 등 고인의 시를 우리말로 낭송하는 등 한일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주오대 정책문화종합연구소와 주오대 법학부가 ‘시는 언어의 디자인-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인가’라는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는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 기조강연에 나선 김준태 시인은 “한국 시인들의 경우 시는 각종 서정의 산물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양가주망, 투쟁의 산물이기도 하고 통일문학의 산물이다”며 “모든 비극의 원인이 분단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부 첫 발제는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가 나서 ‘문병란 문학과 시대의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직녀에게』와 『희망가』가 탄생한 배경과 주제에 대해 언급하며 “문병란이 잔잔한 시정시로부터 시작활동을 시작했지만, 격동하는 시대적 상황에 강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양가주망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실천운동과 문필활동을 전개한 면도 소개하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문병란의 시점과 5월 정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본 가수 이바라키 다이코 씨는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에 일본어로 곡을 붙인 노래를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 〈광주일보〉 발췌

강혜경 운영위원, 소춘아트팩토리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 개관



정식 개관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찾아간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는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소춘아트팩토리에 자리하고 있다. 공연연습센터가 들어선 소춘아트팩토리 부지는 10여 년 전까지 민방위 대피소로 쓰이다가 최근까지 비어있는 상태였다.

광산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뛰어들어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고 이곳에 아르코공연연습센터를 마련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약 100평규모의 대연습실이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대연습실은 오케스트라, 발레, 연극 등 대규모의 작품 연습과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층에 위치한 중연습실은 약 37평 규모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연 연습을 위해 개방될 예정이다.

강혜경 소춘아트팩토리 팀장은 “10여 년도 넘게 낡은 건물로 남

회원소식

남성숙(광주매일신문 사장) 이사,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수상



광주매일신문 남성숙 사장이 한국사회봉사연합회가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 공적나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8일 오후 4시 하이서울유스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11월 2일 한국사회봉사연합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공

헌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기관을 발굴해 사회봉사의 생활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은 '나눔, 다함께 그늘진 사회구석구석에 밝은 빛을'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공적나눔'과 '인적나눔', '물적나눔'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후보자를 접수받은 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적·인적·물적 부문 12명의 수상자 가운데 본사 남 사장은 사회봉사를 위한 노력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남 사장은 30여년 동안 광주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를 통해 여성권익증진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광주시청 여성청소년정책관 재직할때는 세계여성포럼,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등을 개최해 여성청소년정책 개발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사회봉사연합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인으로 1천180개 기관 단체들이 연합해 시민문화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장애, 다문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회 광주여성대회'에서 광주매일신문 남성숙 사장이 선진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김성 후원회장, 국방부 5·18 특조 부위원장 맡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11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특조위 위원장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건리(54) 변호사가 내정됐다.

10일 청와대와 광주시에 따르면 특조위는 모두 39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원 9명, 실무조사 지원

단 30명이다.

우선 특조위원장을 맡은 이 변호사는 함평 출신으로 광주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들기도 했다. 특조위원은 광주시 추천 3명(김성·안종철·최영태)과 공군협회 추천 전직 장성 2명, 대한변협 추천 3명, 역사협회 추천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11일 출범,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인 특조위는 합참, 육군,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보관 중인 기밀문서 해제와 5·18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인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 등을 통해 80년 광주의 진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 <광주일보> 발췌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이종범(조선대 교수) 회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초대 원장 선임
- 백수인(조선대 교수) 이사장, 광주문학상(시) 수상
- 박신영(소설가) 운영위원, 국제펜광주문학상 수상
- 서연정(시조시인) 편집위원, 국제펜광주문학상 수상
- 윤만식(한국민족극협회의 이사장) 이사, 자랑스런 북성인상 수상
- 김성 부이사장, 5·18광주민주화운동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 안평환 회원, 광주도시재생센터장 취임
- 김윤기 회원,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연수이사 빙모상
- 김정희위원장 모친상
- 강리정회원 부친상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임재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상임이사)
- 안평환(광주도시재생센터장)
- 박철주(공무원) • 한재원(공무원)
- 이연용(공무원) • 유정훈(공무원)
- 강신겸(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강지석(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감 사〉

천형욱 변호사

오경희 세무사

〈부이사장〉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정희 시인, 시낭송가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정현애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남구관광청장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남구관광청장

위 원 강성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조직국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혜영 (사)광주관광발전연구소 이사장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사〉

강동완 조선대 총장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과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남구관광청장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양형렬 전 국제로타리 총재

양혜령 치과의사

오견규 화가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스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차일현 세무사

함께하는 사람들



〈지역문화콘텐츠위원회〉

위원장	류영국	지오게이트 대표
위 원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주영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이향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시민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위 원	강혜경	광산구 문화콘텐츠 전문위원
	김봉석	광주대 산업기술경영학부 교수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박신영	소설가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지역문화진흥회

〈회장〉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옥렬	다큐디자인 대표
김용혁	(주)H이 대표이사
오형근	일곡양지요양병원 대표원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 사장
정병수	남부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재익	(주)BioOrigin 대표이사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민정	사업팀장
이지은	총무간사

재단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김덕진	소장
김원중	연구실장
위주영	연구원